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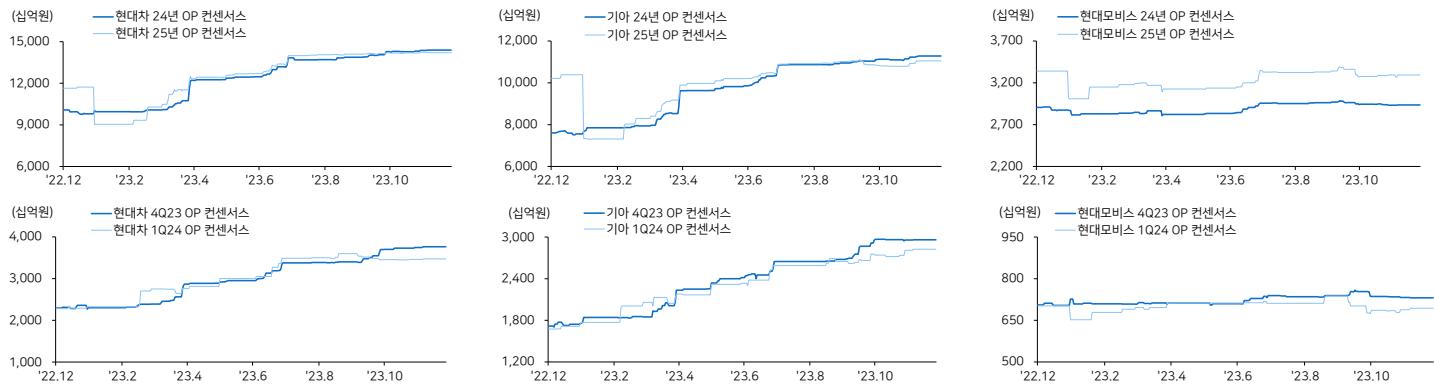
MOBILITY at a glance

2023. 12. 29 (F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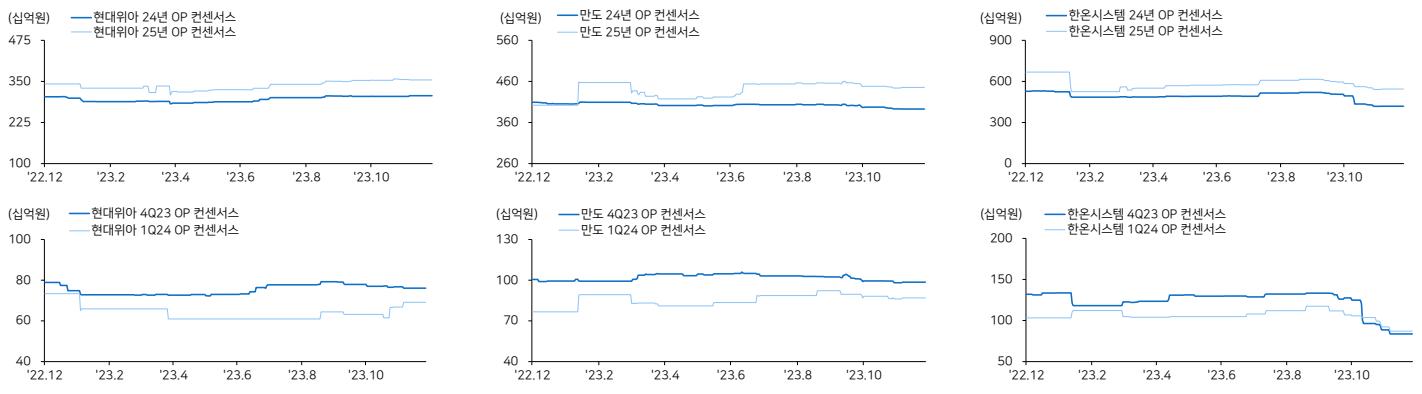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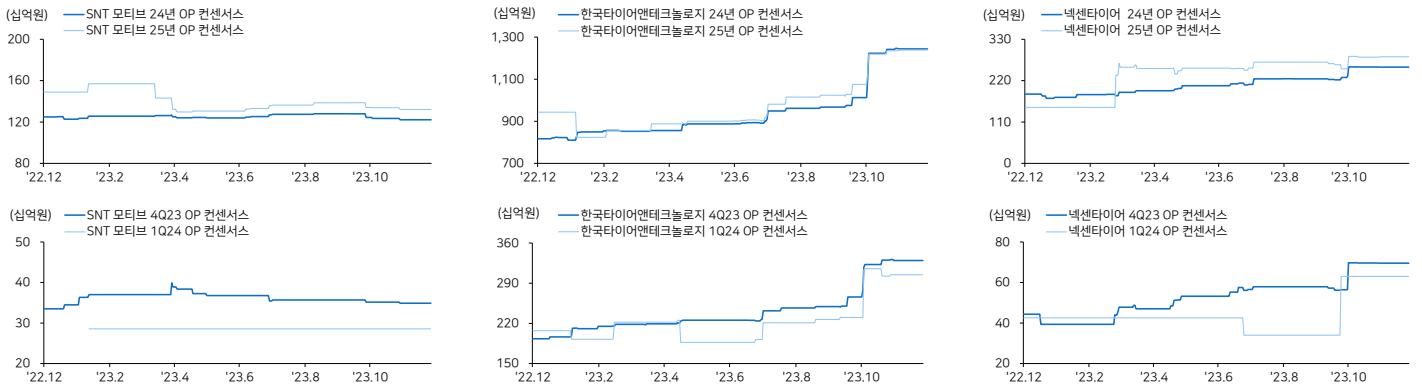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Tesla FSD Beta V12 undergoing extra testing before wider release (Teslarati)

머스크에 따르면 FSD 베타 버전 12가 2024년 1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일반 고객에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 해당 버전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훈련 중이며, 일반 고객 출시 직전의 추가 테스트 과정에 돌입된 것으로 파악

<https://han.gl/DVjMyc>

China's Xiaomi unveils first electric car, plans to become top automaker (Reuters)

샤오미가 전기자동차 제조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 전기자동차 'SU7'의 실물 사진을 공개. 레이쥔 샤오미 회장은 이 날 향후 15~20년 후 포르쉐와 테슬라와 비견될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가 된다는 비전을 밝힘

<https://han.gl/mspXp>

Nio announces closing of \$2.2 billion investment from CVYN (CnEVPost)

중국 언론에 따르면 니오는 성명을 통해 CVYN으로부터 22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완료했다고 밝힘. 이번 투자로 CVYN은 니오의 발행총수의 20.1%를 소유, 글로벌 전략적 및 기술적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

<https://han.gl/tEFpSF>

기아, 새해 인도車 신규 모델 '3총사'로 판매 포트폴리오 강화 (더구루)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내년 인도 시장에 쏘티 페이스리프트, 더 뉴 카니발 하이브리드, EV9 총 3종 신규 모델을 출시할 예정. 인도 진출 5주년을 맞이해 현지 판매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브랜드 전동화 전략에 맞춰 라인업을 구성

<https://han.gl/ANV1WL>

Ford will follow Toyota as it leans into hybrids, scaling back EV targets (Electrek)

업계에 따르면 포드가 전동화 움직임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하이브리드 및 ICE에 집중하는 도요타 모델을 따를 방침. 포드 팀 팔리 CEO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지만 시장은 '움직이는 유효 암금'

<https://han.gl/SglzS>

"전기차 잘만 팔리는데?"... 테슬라, 올해 수입차 3위 노린다 (데일리안)

지난 8월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Y RWD 출시 이후 판매량이 급증하여 테슬라가 국내 수입차 연간 판매 3위 자리 를 위협. 테슬라의 유통 누적판매량은 15,439대로, 11월까지 BMW, 벤츠, 아우디에 이어 국내 판매 4위를 기록 중

<https://han.gl/ESoEl>

中 니오, 美 재재 피해 51나노 침 개발...엔비디아 자율주행차 침 능가? (디지털투데이)

니오가 51나노미터 공정을 사용한 차량용 시스템온칩(SoC)을 개발하는 가운데 엔비디아 대표 SoC와 비교해 4배 이상 높은 성능을 나타낼 것이라 예고. 니오는 오는 2025년 출시하는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 ET9에 해당 SoC를 탑재할 예정

<https://han.gl/RipuP>

GM sues San Francisco, seeking \$121 million in back taxes, penalties (Reuters)

GM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샌프란시스코시가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로즈'의 존재를 이용해 부당하게 GM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 GM 주장에 따르면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은 7년간 총 1.8억달러 수준

<https://han.gl/yaynmR>

현대차, 6개월만에 기술 수장 경질... "미래車 전략 혼선 책임" (조선일보)

현대차그룹이 지난 6월 임명한 김용희 기술총괄책임자(CTO)를 고문으로 일관에서 후퇴시키고, 그룹 연구개발센터인 남양 연구소 조직개편에 돌입.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내달 새 CTO와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

<https://han.gl/Ehistr>

EV underdog VinFast to open first dealership in US (Electrek)

빈फ스트는 4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미국 내 첫 대리점을 열겠다고 발표. VF 8 크로스오버 모델을 시작으로 Leith Automotive 그룹과 제휴하여 차량 판매, 수리, 유지보수 및 부품을 제공할 예정

<https://han.gl/gxrco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문서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